



<매미꽃>



<합박꽃나무>



<제비꽃>

자연 모습 그대로 간직 '생태계 寶庫'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⑫ 생태자원(식물)

1345종 식물 멸종위기 203종

소나무 군락 전체 면적의 36%

공기 좋고 경관 수려 '치유의 산'

광주 도심과 맞닿아 있는 무등산은 연간 방문객이 700만 명에 육박할에도 보전이 잘돼 자연자원의 보고로 통한다. 무등산은 최근 건강 치유물질을 띤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유의 숲'이라는 명성도 얻었다. 광주시민이 중심이 돼 무등산을 잘 보존한 덕분이다. 무등산 권역 내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자원을 살펴봤다.

◇소나무·졸참나무 넓게 분포=무등산 국립공원 전체 75.425km²중 소나무 군락이 26.04km²로 전체 면적의 3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졸참나무 군락이 7.70km²도 뒤를 잇고 있다. 무등산 산림의 대부분은 2차림으로, 침엽수인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편백나무를 비롯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패죽나무, 비목나무, 팽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층층나무, 노각나무 등 낙엽활엽수 혼효림(두 종류 이상의 수종)이 울창하게 조성돼 있다.

무등산권역의 현존식생을 분포지역별로 살펴보면 소나무 군락은 무등산 전역에 고르게 분포(35.75%)해 있으며, 신갈나무군락은 동북사면의 해발 700m, 남서사면의 900m 이상에서 산 정상부근까지, 굴참나무군락은 응주계곡의 좌우 사면, 원효사 서인봉에서 중봉에 이르는 사면에 넓게 퍼져 있다. 또 졸참나무 군락은 해발 350~800m부근에서 소나무 또는 신갈나무군락과 혼합해 자라고 있으며, 상수리나무군락은 해발 290~400m의 잣고개 우측 북사면과 서인봉~마집봉 사이에 분포해 있다. 역새군락은 바람이 많은 해발 900m 이상의 장불재 부근에 많다.

◇'무등산 살리기'로 울창한 산림=일제 말기 남벌과 광복 후 무분별한 벌채로 고목은 거의 사라졌지만 광주시민의 무등산 살리기 운동에 힘입어 울창한 자연림을 간직하고 있다. 무등산 권역의 녹지자연도 등급은 20~50년생의 자연식생이 분포하는 8등급 지역이 52.90%로 가장 많고, 20년생 이상이 분포하는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은 26.81%다. 따라서 무등산 정상을 중심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의 보존 관리와 함께 자연식생 복원사업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멸종위기식물만 203종=무등산 국립공원 내 식물은 1345종류(255과 558속 1116종 186변종 43종중)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식식물(학술·생태·상업적 가치 등이 높아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만 203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등급별로 구분하면 ▲5등급 19종(눈주목, 왕벚나무 등) ▲4등급 12종

(촉백나무, 산복사, 외방풍, 갈사초, 섬포아풀 등) ▲3등급 43종(가문비나무, 아왜나무, 누각나무, 선갈퀴, 왕다람쥐꼬리 등) ▲2등급 32종(눈향나무, 애기괘이밥, 매발톱꽃, 층층나무, 통등굴레 등) ▲1등급 97종(청나래고사리, 봉의꼬리, 송악, 풀사철나무, 범꼬리, 개구리발톱 등)이다. 또 문헌자료에만 있고 미확인된 종 가운데 왜미나리아재비와 돌단풍, 매발톱꽃 등이 증심사~새인봉 구간에서 확인됐으며, 눈향나무와 왜방풍도 규방암 일대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국산 특식식물 46종, 귀화·외래종도 94종=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독특한 식물로 귀중한 유전자원인 특식식물이 46종이나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식식물은 눈주목, 병꽃나무, 벌개미취, 염주나무, 제비꽃, 갈사초, 섬포아풀, 새포아풀, 삿갓나리, 할미밀망, 왕등굴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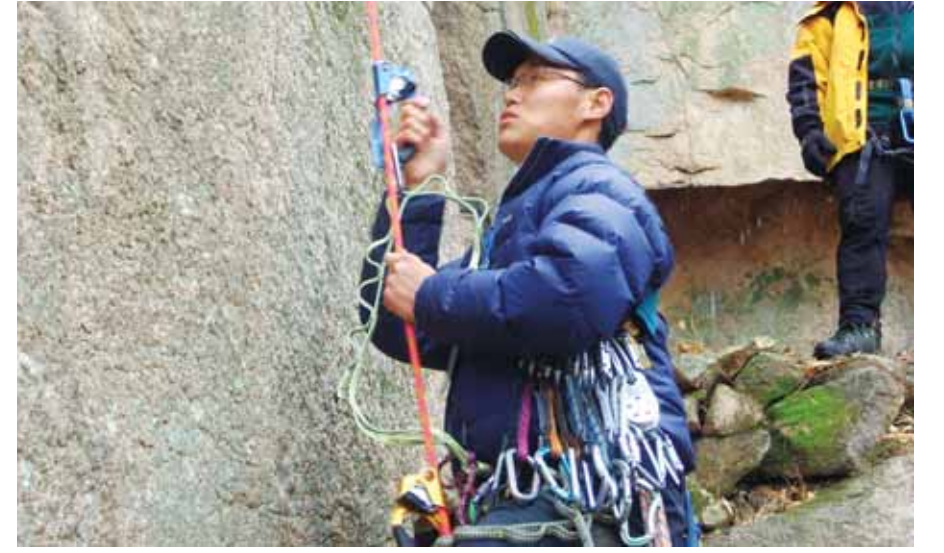
이 밖에 귀화식물과 외래종도 94종이나 분포해 있다. 총 71종의 귀화식물 중 개체수가 많은 '귀화도 5'에 해당하는 식물은 미국가막사리, 소리쟁이, 쯤명아주, 갯, 족제비싸리, 아까시나무, 토끼풀, 달맞이꽃, 개쑥갓, 서양민들레 등 19종이다. 귀화식물 유입시기는 제 1기(1921년 이전) 41종류, 제 2기(1922~1963년) 13종류, 제 3기(1964~현재) 9종류다.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은 은행나무와 개잎나무, 스트로브자나무, 너수송 등 23종이 무등산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피톤치드 풍부한, 치유의 무등산=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 인근 제1수원지 편백나무 숲의 한 달 평균 피톤치드 농도는 2080pptv(1조분의 1을 나타내는 부피 단위)에 이른다. 이는 치유의 숲으로 유명한 보성군 제암산(2597pptv)이나 장흥군 우드랜드(1626pptv)의 피톤치드 농도와 비슷한 수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그동안 무등산 주요 등산로 11개 지점에서 인체 면역력을 증강하는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의 농도를 조사해 왔다. 무등산 11개 지점에서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가장 풍부한 제1수원지 주변 편백나무 숲과 삼나무 숲의 면적은 1.3ha다. 수령 50년 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2000여 그루에 이른다. 제1수원지 편백나무 숲과 삼나무 숲은 공기의 비탄으로 불리는 음이온이 건강 증진에 필요한 cm³ 당 700개보다 많은 2200~2400개에 이른다. 또 광주 북구 금곡동 원효사 옆 삼나무 지대인 관음암 주변도 피톤치드 농도가 1331pptv나 됐다. 이 밖에 피톤치드 농도는 무등산 바람재 950pptv, 북구 금곡동 청룡암터 742pptv 등이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와 무등산 문중군 선안문 등산학교장

암벽등반가로 키워준 어머니이자 스승



문중군 선안문등산학교장이 지난 2006년 11월 무등산 선비바위에서 알파인클라이밍을 수강생을 대상으로 등반 시범강의를 하고 있다.

산악인으로서의 첫 출발은 무등산에서 시작했다. 지난 1988년 대학 새내기 때 산악부 동아리를 가입하면서 동화사 터에서 신입생 환영등반으로 시작했고, 새인봉, 선비바위에서 암벽등반을 처음 배웠다.

10년 후, 세레토레(CERRO TORRE)라는 남미의 1500m 거벽 단독등반을 준비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암벽을 오르는 훈련을 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새인봉에 혼자 올라 밤새도록 암벽등반을 하며 도전적 열정을 불태웠다.

새벽 3시, 혼자 새인봉 암벽에서 자일에 매달려 있으면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뛰어 올라왔다. 지난 2007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고인이 된 후배 이현조다. 밤마다 산악훈련으로 증심사에서 중머리재~새인봉을 지나 주차장으로 가는 코스를 각자 홀로 뛰었던 것이다. 서로 미쳤다고 생각하며 이심전심 웃던 때가 엇그제 같다.

이후 나는 히말라야와 알프스 등 해외 원정등반을 열심히 다녔고 2000년에는 개인 등산학교도 열었다.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일에 미쳤을 때 가능

한 일이기 때문이다. 산악인은 산에 미친 사람이고 무등산은 아마도 광주의 산악인에게 있어 하나의 주제로 엮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아닐까 싶다.

무등산은 산악인으로서 나를 낳아주었고 암벽등반가로 키워 준 산이다. 또, 현실에 지쳤을 때 무등산을 오르면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새인봉에 서면 그때 산친구가 생각나고 동화사 터에 가면 대학 새내기 때 풋풋함이 떠오른다. 선비바위 암벽에 매달리면 짧은 날 원정등반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 삶의 새로운 활력이 솟구친다.

항상 나를 새롭게 하는 산, 앞으로도 나를 지켜보며 내가 게으르고 안주하려 할 때면 깨우침을 줄 산. 산은 이렇듯 나를, 아니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요즘 화두는 힐링이다. 내가 산악인으로 무등산과 함께 찾은 147만 광주시민도 무등산과 함께 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광주의 산악인으로서 모험과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 산악계를 대표하고 세계 산악 문화의 흐름을 주도할 산악인을 잉태하는 무등산, 생명력 있는 건강한 무등산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무등산 갤러리 박구환 작 '무등에서다' (2012) 정지에 채색(106 × 58cm)

"은혜로운 무등산이 광주라는 도시와 자연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앞에 어두운 색으로 채색된 부분은 도시를 뜻하고 그 안에 꽃들은 도시 속 자연을 의미한다. 삭막한 도시지만 무등산의 품에 안기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무등산권역의 현존식생 분포 면적 및 구성비 (단위: km²·%)

군락명	면적	비율	군락명	면적	비율
소나무군락	26.04	35.75	리기다소나무림	5.48	7.52
졸참나무군락	7.70	10.56	반나무림	0.84	1.15
졸참나무-소나무군락	1.10	1.51	아까시나무림	0.66	0.91
상수리나무군락	3.32	4.55	전형군락	0.24	0.33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	4.61	6.33	역새군락	1.33	1.83
굴참나무군락	2.07	2.84	편백나무림	0.25	0.34
굴참나무-소나무군락	0.51	0.70	경작지	5.69	7.82
신갈나무군락	7.27	9.97	저수지	0.36	0.50
떡갈나무군락	0.35	0.48	총력	0.58	0.80

(출처: 광주시 자료)



<층꽃나무>



<삿갓나리>



<승마>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